신흥국 전략

인도–EU FTA 타결 임박?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인도–EU FTA 타결 임박? 긍정적 기대감이 우세한 상황

1월 27일 예정된 EU 정상급 대표단의 인도 방문 및 정상회담을 전후로 인도–EU FTA 타결 관련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와 EU는 2007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견이 누적되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장기간 표류해온 협상이 최근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미국발 관세 압박이 있다. 대외 통상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대외 충격 완화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협상 동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EU는 이미 인도 전체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처로, 미국에 이어 2위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 및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존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미국 의존도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 특히, 섬유의복의 경우 EU 관세가 10% 수준으로 경쟁국 대비 높았기 때문에 FTA 타결 시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까지 상향한 이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가 나타난 만큼, EU향 수출이 늘어날 경우 섬유의복뿐 아니라 가죽·보석류 등 전반적인 노동집약 업종의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 역시 본 협정이 선진국과 체결하는 협정 중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징성을 부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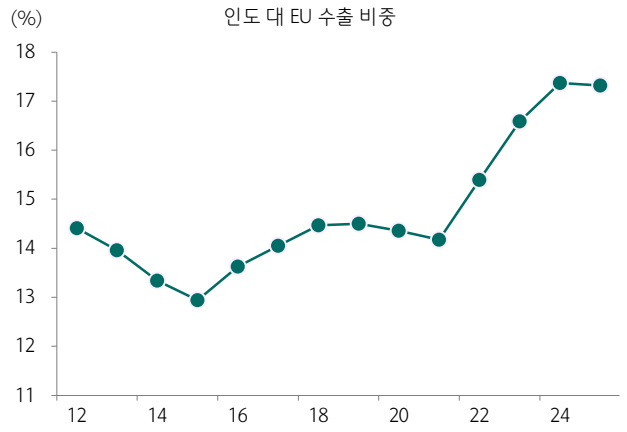
다만,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한 품목도 존재

한편, 협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품목도 있다. 첫째는 자동차다. EU는 인도 시장 접근성 확대를 원하지만, 인도는 완성차 관세가 광범위하게 인하되거나 철폐될 경우 유럽 완성차 업체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로컬 업체의 경쟁 심화와 마진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내 제조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만약 관세 인하가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도 자동차 업계에 대한 충격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단계적 인하로 결정되거나 배기량·가격대 기준 프리미엄 세그먼트에 한정될 경우 영향은 프리미엄 라인에 국한돼 우려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부문의 세부 협상 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둘째는 철강이다. EU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도입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1차 대상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품목들은 인도의 대EU 수출 상위 품목에 해당되며, 특히 대EU 철강 수출은 인도 전체 철강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적지 않다. 인도는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으나 EU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완전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CBAM 부담을 낮추거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가 마련될 경우 철강 업체에 대한 충격을 일부 완화할 여지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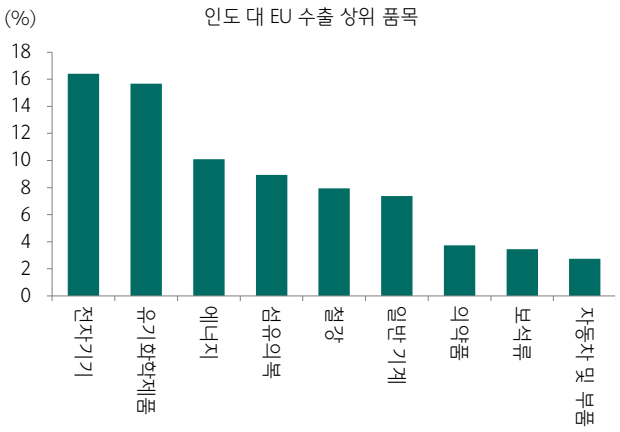
종합하면, 인도–EU FTA 타결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우세하나 협정 효과는 품목별로 차별화될 수 있어 자동차·철강 등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협상 세부 조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트 1. 인도 대EU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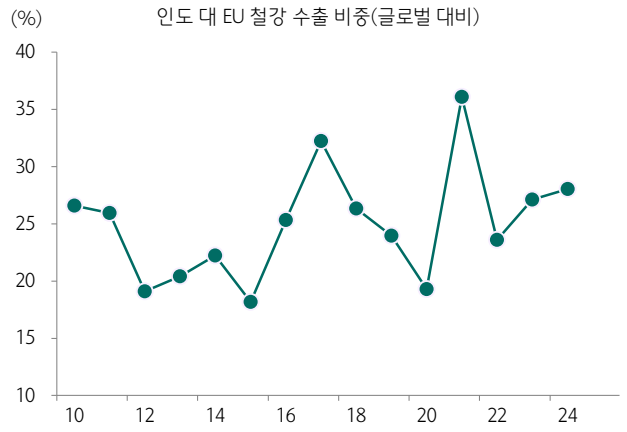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2. 인도 대EU 수출 상위 품목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3. 인도 대EU 철강 수출 비중



자료: CEIC, 하나증권

차트 4. 인도↔EU 품목별 관세

	EU→인도 부과 관세	인도→EU 부과 관세
농산물, 육류	15.2	42.7
화학제품	3	9.9
철강	1.5	7.6
전자기기	0.8	4.7
섬유의복	10	9.5
전자제품	2.5	8.4
보석류	0.5	1.7
자동차	3.7	35.5
플라스틱	5.8	10.4

자료: GTRI, 하나증권